



기아차 ‘모닝’ 100만대 돌파 ‘국민 경차’ 자존심으로 질주

2004년 출시 후 올 11월까지

국내서 총 100만1177대 판매

2004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기아자동차의 경차 ‘모닝’이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7일 기아차에 따르면 모닝은 2004년 출시 후 3세대에 걸쳐 올해 11월까지 국내에서 총 100만1177대 판매됐다.

기아차 단일차종 중 내수 판매가 100만대 고지를 넘어선 것은 모닝이 최초다. 현대차까지 포함하면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쉐타페에 이어 다섯 번째다.

1세대 모닝과 2011년 출시된 2세대 모닝은 각각 37만8183대, 56만1679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올해 1월 등장한 3세대 모닝은 국내 경차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 속에서도 지난 달까지 6만1315대 팔리며 동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모닝은 1999년 출시된 경차 ‘비스토’의 뒤를 잇는 후속 차종으로 개발됐다.

기존 배기량이 800cc였던 비스토의 약한 출력과 부족한 공간, 안전성 등의 단점을 보완해 배기량을 1000cc로 높이고 전 폭을 100mm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18.3km/ℓ의 우수한 연비와 심플하면서도 볼륨

감 있는 디자인을 내세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연간 판매 대수는 2005년까지 1만대 수준이었다가 2006년 처음으로 2만대를 돌파했다.

2008년에는 디자인과 동력성능이 개선된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뉴 모닝’이 출시되면서 판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돼 이듬해 처음으로 연간 10만대를 달성했다.

2세대 ‘올 뉴 모닝’은 19.0km/ℓ의 우수한 연비와 동력성능뿐 아니라 경차 최초로 듀얼 에어백을 갖추는 등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2015년 1월에는 동급 최초로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장치)을 적용하고 출력을 개선하는 페이스리프트

를 거쳤다.

이후 기아차는 6년 만의 완전변경(풀체인지)을 거쳐 첨단 스마트 기술을 갖추고 안전성을 높인 3세대 ‘올 뉴 모닝’을 올해 1월 출시했다.

신차 효과에 힘입어 모닝은 월평균 6000대가량 판매돼 지난해 쉐보레 스파크에 9년 만에 빼앗긴 경차 시장 1위를 탈환하게 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모닝이 명실상부 국민 경차로 자리 잡았다”며 “작은 차임에도 안전과 주행성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이 고객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61.98 (-12.39) ↑ 금리 (국고채 3년) 2.09% (+0.01)

↓ 코스닥 753.46 (-14.93) ↓ 환율 (USD) 1093.50원 (-0.20)

대우위니아, 동부대우전자 인수할까

본업찰 참여 ... 이란 엔텍합·터키 베스텔과 3파전

동부대우전자 인수를 놓고 국내외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대우위니아가 본업찰에 참여 지역 경제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IB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 매각을 위한 본업찰에 대우위니아, 이란 엔텍합, 터키 베스텔 세 곳이 참여했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KTB프라이빗 에쿼티 등 동부대우 재무적투자자(FI)는 마지막 입찰자인 베스텔과의 실무 협의 후 다음 주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텔은 지난달 28일 마감된 본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추가 합류했다.

이란의 최대 가전업체인 엔텍합은 한국 사모펀드(PHF) 운용사인 웨일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업찰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최근 완화된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가 다시 강화될 경우 펀드설립부터 어려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펀드설립 인가가 나더라도 5%가량인 동부대우전자의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 미국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스텔은 올 초 도시바의 TV 사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등 가전업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인수 전에 늦게 뛰어 들었고 노조의 반대나 지역 여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내 기업으로 본사와 공장을 광주로 이전한 대우위니아는 해외 매출 확대와 김치냉장고 탑재에 쓸 수의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수전에 나섰다.

인수전을 수행하는 대우그룹은 전기·전자 제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기반으로 동부대우전자 사업전략 강화는 물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특히 대우위니아는 해외 매각 시 우려되는 구조조정과 기술유출, 막된 매각 등의 위험이 적고, 예비입찰 전부터 꾸준히 거론됐던 광주공장 폐쇄와 직원 해고 등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

가전업계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계가 대우위니아의 인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정서상 경영 안정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광주공장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문제는 매각대금 마련 여부인데 대우그룹은 이번 인수에서 그룹 차원의 자금을 적극 활용 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 측은 현재 인수에 투입할 그룹 사내 유보금 500억원을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사례를 보더라도 채권단은 국내사업 유지, 고용보장 조건을 제시했지만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의 미온적인 태도로 결렬돼 매각 절차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해외업체의 경우 인수 후 광주공장 존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직원 해고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동부대우전자가 국내 기업에 매각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하이트진로 준프리미엄급 소주

‘참나무통 맑은이슬’ 14일 출시

하이트진로는 참나무통 숙성원액을 블렌딩한 준프리미엄급 소주 ‘참나무통 맑은이슬’을 14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참나무통 맑은 소주의 재출시 요구에 따라 고가의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의 높은 가격 부담을 줄이고 대중적인 소주가 갖지 못한 은은한 풍미를 더 해 신제품을 내놓게 됐다고 하이트진로는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3년간의 연구 개발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소비자 조사를 거쳐 소비자 요구에 최적화된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알코올 도수 16도, 300㎖용량으로 차별화해 소주를 부담 없이 즐기길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과 여성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강조했다. 제품 패키지에 참나무통 이미지를 삽입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고, 병목에도 태그(Neck-tag)를 추가해 세련미와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출시가는 1443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자카르타 세종학당에 책 전달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현)이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세종학당에서 진행한 도서 전달식에서 차상현 아시아나항공 자카르타 지점장(왼쪽 여섯번째)과 권오기 세종학당재단 사무총장(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특히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와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시범설치 및 교체사업, 광의료기기 수출 협의도 이끌어냈다.

또 한국광산업진흥회 해외 마케팅센터와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가운데 주요국의 광산업 시장동향과 시장진출 성공사례, FTA 정책 및 보험지원제도 등 수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국내 LED조명 보급 활성화를 위해 LH공사 아파트 조명 표준화 방안과 LED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정 등 보급현황과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2017 광주 광산업 유망기술 로드쇼’ 300억 수출 계약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2017 광주 광산업 유망기술 로드쇼 및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3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광산업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마련한 로드쇼와

수출상담회가 해외 바이어와 광관련 기업 및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로드쇼에는 광통신, 광의료, OLED협동조합을 비롯해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이전 기업 제품과 광접속합체, LED집어등 광모듈, 스플리터(Splitter), 케이블AWG, 컨테이너형

ESS시스템, 태양광풍력발전기, 피부미용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이 출품됐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남미를 비롯한 24개국에서 광관련 바이어 150여명이 참가해 국내 광산업 업체들과 320여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1600억원의 수출상담 성과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

농협 전남본부, 경기도 고양에서 전남쌀 구매 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농협삼송유통센터에서 전남쌀 구매 고객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고양신도시에 있는 삼송유통센터는 서오릉 관광지, 고양스타필드 개장 등 전남쌀 판매확대를 위한 마케팅도 전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남도와 전남농협은 판매 점 유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과 9월 전남쌀 행사를 진행해 2억원 매출을 달성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1억2000만원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동진, 임미, 청무 품종 등을 사용한

3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전남쌀 구매 고객에 참쌀(500g)을 추가 증정한다. 또 행사기간 농협RPC와 공동으로 시장개척단을 꾸려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판매확대를 위한 마케팅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흥목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전남도와 함께 진행한 수도권 판매장 전남쌀 판촉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 쌀의 점유율이 향상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수도권 마케팅 실시와 릴레이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육최적합 대로변, 병원가)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점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피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